

□ 연구논문

『오한집』 간행과 칠탄서원 건립의 역사적 의미

이남옥

2021. 6.

韓國史學史學報

www.kci.go.kr

□ 연구논문

『오한집』 간행과 칠탄서원 건립의 역사적 의미*

이남옥**

【국문초록】

손기양은 1588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성주의 주학교수에 임명되었다. 이때 성주에 살고 있던 정구를 찾아갔고 이후 빈번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강마했다. 손기양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고 지방관으로 왜군을 막는데 힘썼다. 이 과정에서 경상좌도의 퇴계학과 인물인 정경세·조호익·이윤우·이전·이준·성안의·신지제·여대로·조정·서사원·이후경·손처눌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손기양은 조정의 당쟁이 심화되자 1609년 창원부사를 끝으로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밀양으로 낙향해 점필서원을 중수하고 밀양향교를 재건하였으며, 밀양사람을 대표해 이언적의 문묘 종사를 촉구하는 등 향촌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손기양 사후 그의 후손들은 유고를 정리하고 유허를 정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손기양의 퇴계학과 내 위상을 정립하고 학문적 권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황-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 계보의 핵심 인물인 이익에게 손기양의 행장을, ‘이황-김성일-장홍효-이현일-이재’로 이어지는 영남 남인의 핵심 인물인 이상정·이광정 형제에게 『오한집』 교정과 서문을 부탁했다.

한편, 칠탄서원을 건립하고 손기양을 향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정 이후 영남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0-C05).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인 류치명은 「칠탄서원봉안문」과 「상향축문」을 지었으며, 이황의 10세 종손인 이휘녕은 「칠탄서원청절사상량문」을 지었는데, 이들은 퇴계학과 내에서 칠탄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기양은 퇴계학과 그중에서도 한강 정구 문인이자 밀양을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주제어】

손기양, 손사익, 밀양, 오한집, 칠탄서원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유허 정비와 칠탄서원 건립 |
| 2. 손기양과 퇴계학과의 관계 | 5. 맺음말 |
| 3. 『오한집』 간행 과정 | |

1. 머리말

1754년 密陽에 사는 孫思翼(1711~1794)은 李灝(1681~1763)을 찾아가 5대조 孫起陽(1559~1617)의 행장을 부탁하며 「七灘亭十六境圖」를 보여 주었다.¹ 이에 이익은 손사익에게 손기양의 행장과 함께 「七灘亭十六景并序」를 써주었다. 손사익은 『鰲漢集』 간행을 준비하며 李象靖(1711~1781)에게 문집의 교정과 서문을 부탁했으나 병환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자 다시 이광정에게 부탁해 교정과 서문을 받았다. 이후 蔡濟恭(1720~1799)에게 『오한집』의 서문과 손기양의 墓碣銘을 받았으며, 후대에 丁若鏞(1762~1836)에게 손기양의 墓誌銘을 받았다.

한편, 손기양이 이익에게 보여준 「칠탄정십육경도」의 장소인 칠탄정은 손기양의 유허에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손기양이 살았던 몇 칸의 초가집을 1725년에 증손 孫碩

1 李灝, 『星湖全集』 권6 「七灘亭十六景【并小序】」. “今孫上舍伯敬自密陽來示七灘亭十六景畫者, 卽其五世祖鰲漢先生遺基, 而子孫藏修不廢也.”

寬(1670~1743)과 孫碩範(1684~1723)이 세 칸의 집을 짓고 '眞巖書堂'이라 이름하였는데, 이후 1748년에 손사익은 진암서당을 다섯 칸으로 확장하여 옮기고 전면 양 옆에 건물을 지어 서원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784년에 여기에 4칸의 집을 짓고 5대 조 손기양의 輟釣詩에 따라 '七灘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44년에는 사당을 세워 서원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七灘書院'이라 편액했다. 이후 칠탄서원은 186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으나, 1914년에 유허비를 세우고 1936년에 중수되었다.²

현재 칠탄서원에는 이익의 「칠탄정십육경병서」 書板, 任守迪(1671~1744)의 「寄題眞巖溪亭」, 申光洙(1712~1775)의 「敬次七灘亭韻」, 任珽(1694~1750)의 「寄題眞巖溪亭」, 李家煥(1742~1801)의 「謹次七灘亭韻」, 丁學淵(1783~1859)의 「雲江樓」,³ 許傳(1797~1886)의 「敬次雲江樓韻」, 權應夔(1815~?)의 「謹題雲江樓」 등 詩板, 채제공의 '七灘亭'·'眞巖水石', 權應夔(1815~?)의 '挹淸堂' 등 扁額이 있다.

『오한집』 간행과 칠탄서원 건립을 둘러싼 당대 역사적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오한집』 간행과 유허 정비를 주도한 손사익을 비롯한 후손들이 이익·이상정·이광정·채제공·정약용 등 남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 기존에는 밀양 지역 재지 사족의 향촌활동에 대해 손기양과 손사익의 사례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⁴ 이외에 『七灘誌』 소재 한시를 문학적으로 연구하였으며,⁵ 강세황을 연구하면서 「칠탄정십육경도」에 대해 검토하였다.⁶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오한집』 간행과 칠탄서원 건립을 둘러싼 당대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한집』의 저자 손기양, 유고 간행과 유허 정비를 주도한 손사익을 비롯한 후손들의 학적 성향과 그 교유 관계를 분석하고, 칠탄정 등에 서판·시판·편액 등 현판을 쓴 인물들과의 관계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孫八洲·鄭景柱 譯主, 1989, 『國譯·原文 七灘誌』, 第一文化社, 11쪽.

3 정학연의 「운강루」가 『칠탄지』에는 「謹題雲江樓」로 되어 있다.

4 장동표, 2009, 「17세기 초반 재지사족 孫起陽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 장동표, 2019, 「조선후기 향촌 재지사족의 동향과 향촌사회 활동-18세기 밀양지역 향촌지식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5.

5 孫八洲, 1991, 「《七灘誌》所載 漢詩 研究」, 『釜山漢文學 研究』 6.

6 이경화, 2016, 『姜世晃 研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손기양과 퇴계학파의 관계

손기양의 본관은 密陽, 자는 景微, 호는 磬漢·松磎이다. 그는 1559년(명종 14)에 밀양 용성리 집에서 孫兼濟(1536~1603)와 靈山辛氏(1546~1606)의 아들로 태어났다. 손기양은 15세 때인 1573년(선조 6)에 官閣에 들어가서 『小學』, 四書を 강하였고,⁷ 20세 때인 1578년(선조 11)에 估畢書院에 유학하였다.⁸ 그는 諸子百家의 책을 두루 읽었으며, 『心經』을 비롯한 性理書에도 잠심하였다.⁹ 그는 과거에도 힘써 1585년(선조 18)에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1588년(선조 21)에 文科에 급제하였다.¹⁰

이듬해인 1589년(선조 22)에 星州의 州學教授에 임명되었고, 32세 때인 1590년(선조 23)에 당시 성주에 살고 있던 鄭述(1543~1620)를 찾아가 만나보았다. 이때부터 이후로 편지를 빈번히 주고받으며 학문을 강마하였다.¹¹

1591년(선조 24) 가을에 성주에서 밀양으로 돌아왔다.¹² 1592년(선조 25) 4월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손기양은 虎踞山으로 피난하였다. 이때 호거산 아래 石洞村에서 진사

7 『磬漢集』 연보. “神宗皇帝萬曆元年癸酉【先生十五歲】隨鄉士入官閣，講小學及四書。” 이후 『오한집』 번역은 孫八洲 編譯『國譯·原文 磬漢先生文集』(빛남, 1992)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8 『오한집』 연보. “六年戊寅【先生二十歲】… 遊估畢書院.”

9 『오한집』 연보. “五年丁丑【先生十九歲】。○先生始弱冠，而已淹貫百家，乃曰：‘學不可以務博，遂專『心經』訓，服膺講究。自是學業日進，詞藻亦蔚然矣。’… 十一年癸未【先生二十五歲】。○先生旁治學業，而於性理諸書，著工尤邃。嘗曰：‘百家語，吾未嘗不讀，亦未嘗不喜。爲學之要，當以經訓爲先。’遂潛心體蹟，孜孜不怠，造詣精深，文辭典瞻。”

10 『오한집』 연보. “十二年甲申【先生二十六歲】秋赴鄉解居魁，又魁別試初試。十三年乙酉【先生二十七歲】春，中進士會試三等。十四年丙戌【先生二十八歲】十五年丁亥【先生二十九歲】… 秋，中式年東堂試。十六年戊子【先生三十歲】三月，及第出身。” 『乙酉八月司馬榜目』(국사편찬위원회[MFA지수532]),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11 『오한집』 연보. “十七年己丑【先生三十一歲】拜星州學教授。… 十八年庚寅【先生三十二歲】執贄往拜寒岡鄭先生【先生夙有求道之志，時在州學，遂往拜鄭先生。自後辨難疑義，書牘頻繁】； 현재 『오한집』에는 손기양이 정구에게 보낸 편지 2통이 있으며, [손기양, 『오한집』 권3 「答寒岡先生【丙辰】」, 「上寒岡先生【丙辰】 本簡及寒岡先生所答稟目儀範，並遺佚不收。】 『한강집』에는 정구가 손기양에게 보낸 편지 1통이 있다. [鄭述, 『寒岡集』 권7 「與孫景微【起陽】」]

12 『오한집』 연보. “十九年辛卯【先生三十三歲】秋自星州歸。”

李慶承(1553~?) 등과 함께 의병을 창의하였다. 당시 密陽府使 朴晉(1560~1597)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였고, 손기양은 의병과 힘을 합쳐 밀양 三浪津의 鶴院關을 막았다.¹³ 이후 박진이 慶尙兵使로 승진하자 손기양은 郭再祐(1552~1617)의 진으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省峴道察訪이 되었다.¹⁴

손기양은 1592년부터 1604년에 고향 밀양으로 돌아오기까지 관직 부임과 피난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이사 다녔다.[淸道 西枝驛(1593)→新寧(1595)→慶州 慈仁縣(1595)→大邱 八公山(1596)→安東 春陽縣(1597)→溫陽 金谷村(1598)→安東 春陽縣(1599)→義興 缶溪(1599)→慶州(1601)→大邱 解顔(1601)→蔚山(1601)→榮川(1602)→密陽 竹院(1604)] 주로 경상좌도 지역을 다니며 퇴계학과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93년(선조 26)에 손기양은 이황의 문인인 金玘(1540~1616)과 柳成龍(1542~1607)의 문인인 李垞(1560~1635)을 안동에서 만나보았다. 당시 김륵은 安集使로 안동에 머물면서 각 읍의 수령을 불러 모았고, 손기양도 성현도 찰방으로서 찾아가 보았던 것이다. 또한 喪中이었던 이준이 안동에 왔으므로 조문하기 위해 찾아갔다.¹⁵

1595년(선조 28)에 손기양은 新寧縣監이 되었는데, 그해 이준 역시 災傷都事가 되어 張梯元(1556~1621)·鄭之僑(1567~?)와 함께 신녕현에 왔다. 이때 비가 와서 이들은 신녕현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短律을 지어 「同話錄」을 만들었다. 손기양은 “行李의 皇華가 귀하신데 사귄 정은 현감이 깊도다.”라는 시를 지었다.¹⁶

13 밀양 부사 박진은 밀양 방어뿐만 아니라 영남대로를 막기 위해 작원관에 주둔하고 항전하려 했으나, 고니시가 우회하여 결국 밀양이 함락되었다. 이후 밀양 수복 때까지 손기양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상좌도 지역에서 지방관 및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14 『오한집』 연보. “二十年壬辰.【先生三十四歲.】四月倭寇大至, 奉兩親避亂于虎踞山. … 倡設義陣于虎踞山下石洞村.【先生痛念國事, 以恩義之難於兩全, 憂形于色, 生員公知之, 有‘勿以我在而任汝盡忠之教.’ 先生遂與鄉居進士李慶承等, 召募鄉兵, 爲倡義之舉. 時府使朴晉領兵來住于此, 先生因與之合軍, 遮截于鶴院. 及朴公陞兵使, 遂間道赴忘憂郭公再祐陣中, 未幾先生亦除省峴察訪. 語在『密州誌.』】除省峴道察訪.”

15 『오한집』 연보. “二十一年癸巳.【先生三十五歲.】… 見栢巖金公【玘.】於安東.【時金公以安集使住安東, 招見列邑守宰, 先生亦往焉.】訪李蒼石.【垞. ○時李公在衰絰中, 以復讐起來安東. 故先生就吊焉.】”

16 『오한집』 연보. “二十三年乙未.【先生三十七歲.】陞拜新寧縣監.【縣當劇路, 倭寇充斥, 民累

1596년(선조 29) 정월에는 체찰사 이원익은 八公山 아래에서 수령을 불러 모아 산성을 수축할 계획을 하였는데, 손기양으로 하여금 수령들과 함께 축성 공사를 감독하고, 각 읍의 식량 및 군량 창고의 역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월에는 防禦使 權應銖(1546~1608)와 함께 팔공산 성터를 살폈고, 3월에는 현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량 창고를 성 동문에 지었다.¹⁷ 이해 가을에 이준과 함께 內延山을 유람하였다. 당시 재상도사였던 이준은 淸河縣의 재해를 시찰하였는데, 孫擘(1546~1600)·崔興國(1551~?)과 함께 내연산을 유람하였고, 손기양은 통첩에 따라 이곳에 이르러 寶鏡寺까지 함께 했다.¹⁸ 1597년(선조 30)에 당시 御史였던 鄭經世(1563~1633)는 손기양이 거처하는 八公山城의 집을 방문하였다.¹⁹

1597년(선조 30)에 丁酉再亂으로 왜군과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고, 축성 공사가 재개되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는 각 수령들을 성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하였고, 이에 손기양은 義城縣令 呂大老(1552~1619), 靑松府使 朴惟仁(1545~?), 義興縣監 李大期(1551~1628), 河陽縣監 文貫道(1551~?), 慶山縣令 趙亨道(1567~1637) 등과 합

年不得耕作。先生撫摩瘡痍，招集流民，接待天將，收募義糧，軍國庶事，應接無滯。】… 李蒼石來訪。【李公時爲災傷都事，與張上舍悌元·鄭公之僑到縣，阻雨留三日，各題短律，爲同話錄。先生詩曰：‘行李皇華貴，交情縣宰深’云云，見集中。】； 손기양, 『오한집』 권1 「乙未春。李都事叔平【悌元】，携張上舍【悌元】，鄭生【之僑】，到縣，阻雨留三日，仍題短律，以爲同話錄。」 「行李皇華貴，交情縣宰深。」

17 『오한집』 연보. “二十四年丙申【先生三十八歲。】正月，謁完平李相公元翼，論兵事。【李公，以體察使，開府于星州八莒縣，招見八公山下守令，以爲修築山城之計。先生謁見於幕府，李公器重之，卽令先生與山底守令及僧將惟政，監董城役，而列邑糧餉及軍倉之役，皆令先生管之。】二月，與防禦使權【應銖。】相視八公山城址。【城在八公山上峯，厓谷懸危，峻絕難攀，天險形勝，甲于諸城。先生以體府令，與義興縣監李公大期，從權公入山城，歷觀城址。】三月，率縣民作糧倉于山城之東門內。”

18 『오한집』 연보. “二十四年丙申【先生三十八歲。】… ○秋與李蒼石遊內延山。【蒼石以都事，看災傷于淸河，與孫上舍擘·崔上舍興國，同遊內延。先生沿牒至此，遂追到寶鏡寺。有唱酬詩，見集中。】”

19 『오한집』 연보. “二十五年丁酉【先生三十九歲。】鄭愚伏【經世。】來訪。【鄭公時爲御史，訪先生于山城寓舍。先生贈之以詩，有‘腰間雪鏑光猶閃，醉倚公山第一峯’之句。】； 손기양, 『오한집』 권1 「贈鄭御史景任【經世。○丁酉。】” “十載南柯夢未濃，風塵此日歎龍鍾。腰間雪鏑光猶閃，醉倚公山第一峯。”

계 성 안으로 들어가 동문 안에 거처하면서 안동 이복의 군량을 운반하여 채웠다. 또 慶州府尹 朴毅長(1555~1615), 蔚山郡守 金太虛(1555~1620), 榮川郡守 洪季男(?~1597), 방어사 권응수, 從事官 申之梯(1562~1624) 등과 함께 나아가 싸우고 들어와 지키는 계획을 세웠다.²⁰

1598년(선조 31) 정월에 군량을 징발하는 것을 감독하는 일로 星山의 山南으로 가서 吳灑(1540~1617), 朴廷琬(1543~1613), 朴廷璠(1550~1611) 등과 만나 의논하였다. 또 宋遠器(1548~1615)를 방문하여 밤새도록 군량을 마련할 일을 계획하였다.²¹

1599년(선조 32)에는 여대로와 함께 覺華寺를 유람했고, 단양으로 부임하는 이준을 전송하였다.²² 1601년(선조 34)에 慶州教授兼提督官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慶州府尹 李時發(1569~1626)은 손기양으로 하여금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경주 聖廟의 중수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때 손기양은 경주에서 玉山書院을 배알하고, 喜好益(1545~1609)을 찾아가 보았다.²³

1601년(선조 34)에는 蔚山判官에, 1602년(선조 35)에는 榮川郡守에 제수되었다.²⁴

20 『오한집』 연보. “二十五年丁酉.【先生三十九歲.】… 九月自山城還, 作公山誌.【是年四月, 倭寇再窺. 體相再董城役, 令僧將推政策之, 又發兩湖僧軍赴之. 時方伯李某先人家眷于城中, 督諸守令俱入. 於是先生, 與義城縣令呂大老·青松府使朴惟仁·義興縣監李大期·河陽縣監文貫道·慶山縣令趙亨道, 携家同人. 先生寓於東門內, 督運安東以上糧餉以實之. 又與慶州府尹朴毅長·蔚山郡守金太虛·永川郡守洪季男·防禦使權應銖·從事官申之梯, 並爲出戰入守之計. 方伯偏性自用, 諸守宰莫不離心. 及八岑之戰, 方伯違衆獨出, 旋即敗北. 先生, 與義僧將推政, 戰于冷泉, 多所殺獲. 及方伯棄城, 三四守令, 以零兵弱卒, 獨守空城, 無計可施, 卽各還官所. 先生作公山志, 以寓忠憤.】”

21 『오한집』 연보. “二十六年戊戌.【先生四十歲.】正月. 以督發義糧事, 往山南村. 按『日錄』, 以督發義糧事, 下山南村, 見吳竹淵灑·朴居昌廷琬·主簿廷璠, 與之相議. 歷訪宋進士遠器, 竟夜懸燈, 措畫壺漿之事. ○按山南, 卽星山地也.”

22 『오한집』 연보. “二十七年己亥.【先生四十一歲.】… 與呂鑑湖.【大老】遊覺華寺. … 送李蒼石赴丹陽任所.”

23 『오한집』 연보. “二十九年辛丑.【先生四十三歲.】… 除慶州教授兼提督官.【時新經大亂, 故都文物蕩然, 聖廟堂廡, 並入煨燼. 李公時發時爲本府尹, 重修聖廟. 及先生領教事, 屬先生作上樑文, 仍監董其役. 工既訖, 先生率諸生列植松其旁, 日與邑中子弟講論于是, 一境興起, 儒風大振. 至今慶之人指其樹而寄慕焉. 語在東京誌.】 謁玉山書院. ○往拜芝山曹先生. ○奉兩親移寓于大丘之解顏.”

울산판관 재임 때 관학 진흥과 풍속 교화를 급선무로 하였고, 봉록을 덜어 백성을 구휼해 유민들을 불러 모았다. 당시 체찰사로 순회하던 李德馨(1561~1613)이 그 치적을 칭찬하였고,²⁵ 그 결과 영천군수로 옮겨 임명된 것이다. 이 무렵 조호익과 정구를 찾아가 뵈었다.²⁶

1603년(선조 36) 10월에 아버지 손검제가 세상을 떠나 이듬해인 1604년(선조 37) 2월에 慶山 城北 언덕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고향인 밀양 죽원의 옛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을에 밀양부 북쪽 春福 언덕에 개장했다. 이때 손기양은 喪祭에서 『朱子家禮』를 준용했고, 이황의 『喪祭禮說』의 問目을 분류하여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였다.²⁷ 1605년(선조 38)에는 「喪祭問目」을 적어 정구에게 품의하였고, 조호익에게 편지를 보내 상례를 논의하였다.²⁸

고향 밀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손기양은 향촌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1606년(선조 39)에 估畢書院을 중수하고 김종직의 위판을 다시 봉안하였으며, 김해의 新山書院에 통문을 내서 申季誠(?~1562)을 배향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진왜란 때 밀양은 적들이 지나가는 길이라서 학교가 모두 불타버렸다. 점필서원은 德城에 있었는데, 향사를 폐지한 지 오래되었고 위판도 끝내 봉안하지 못했다. 이해 봄에 손기양이 창의하여 河鯤·朴宗閔·孫諶命·朴安世·孫起後·柳光胤·朴壽春·柳震榦·李壘·

24 『宣祖實錄』 권144, 선조 34년 12월 29일 임진 4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57, 선조 35년 12월 1일 무자 3번째 기사.

25 『오한집』 연보. “三十年壬寅【先生四十四歲】拜蔚州判官赴任. … 三十一年癸卯【先生四十五歲】正月, 移拜永川郡守【先生在蔚州, 以興學化俗爲先務, 傾俸賑民, 招集流亡, 居官一年, 治化大著. 漢陰李公還朝劄薦, 有曰: ‘蔚州判官孫某, 才兼文武, 政善民牧, 治聲藉甚, 冠于一時.’ 遂有是命. 語載蔚州名宦錄.】”

26 『오한집』 연보. “三十一年癸卯【先生四十五歲】… 往拜芝山曹先生. … 往拜寒岡先生于仙楂菴.”

27 『오한집』 연보. “三十一年癸卯【先生四十五歲】… 十月丁生員公憂【先生亂離之餘, 僑寓他鄉, 而送終諸節, 一遵文公家禮.】三十二年甲辰【先生四十六歲】二月權生員公于慶山城城北之原. … 撤還竹院舊居. … 秋改葬生員公于密陽府北春福之原. … 書退溪先生『喪祭禮說』【先生喪祭, 遵用『家禮』. 又以退溪先生『喪祭禮說』, 門目彙分, 便於攷閱.】”

28 『오한집』 연보. “三十三年乙巳【先生四十七歲】書『喪祭問目』, 稟于寒岡先生. … 與芝山先生書論喪禮.”

金澗 등과 함께 통문을 보내 경내에 알렸다. 가을에 점필서원의 건물을 수리하고 위판을 되돌려 주고 봉안해서 서원의 규모를 회복하였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고을의 수령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하여 춘추의 향사 비용을 제공받았고, 서원 노비를 두었다.²⁹

한편, 임진왜란 때 안동·대구 등 경상좌도 지역에 거쳐하며 만든 인연과도 계속 공유하였다. 1608년(광해군 1)에 정경세와 함께 『朱子書節要』를 강론하였다. 이황이 편집한 『주자서절요』는 퇴계학파의 주요 강학 교재일 뿐만 아니라 당대 주자학 연구서로 널리 읽혔다. 이 무렵 손기양은 서울의 집에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정경세가 찾아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함께 미세한 뜻을 연구하고 강론하였다. 또한 이준이 찾아와 「急難圖說」을 지어주었다.³⁰ 崔暉(1563~1640)·曹友仁(1561~1625) 등도 찾아왔으며, 李好閔(1553~1634)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³¹

1609년(광해군 2)에 왕원부사에 제수되어 대궐에 나아가 사은숙배하기도 하였으나, 조정에서 당쟁이 심화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³² 당시 조정의 정치가 문란하여 정

29 『오한집』 연보. “三十四年丙午【先生四十八歲】重修佔畢書院，復奉安金先生位版【自壬癸以來，密邑爲賊路之衝，學校蕩爲灰燼。佔畢書院在於德城，祀享久廢，位版迄未奉安。是年春，先生倡議，與河鯤·朴宗閔·孫諶命·朴安世·孫起後·柳光胤·朴壽春·柳震榦·李璽·金澗等，發文通諭境內。及秋遂修繕院宇，還安位版，以復院規。投書請助於鄰邑守宰之舊相識者，以供兩丁享禮之費，募置院隸。自是境內士子，始有依歸之所。】作佔畢齋先生辨誣文。… 通諭金海新山書院，論申松溪躋享事。”

30 『오한집』 연보. “三十七年【光海君元年】己酉【先生五十一歲】… 與鄭愚伏【經世】講『朱子書節要』【退溪先生所編輯也。先生嘗讀而悅之。至是先生方寓居京邸，與鄭公講論彌月，研究微義，以相警發。】… 李蒼石來訪。○作「急難圖說」【李月澗典，蒼石之兄也。壬辰之亂，倭寇商山，一日賊猝至，而蒼石患疾倒地，月澗負走上山獲免。至是蒼石官京師，邀畫師作「急難圖」，要諸公識其事，先生作說以贈之。】； 임진왜란 때 갑자기 왜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준이 병을 앓아서 땅에 엎어졌는데, 그의 형 李典(1558~1648)이 동생 이준을 들쳐 업고 산으로 올라가 화를 피하게 되었다. 이후 이준이 서울에서 화가를 불러다가 「急難圖」를 그리게 하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일을 기록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이준은 찾아와 청하자 손기양이 그 설을 써준 것이다.

31 『오한집』 연보. “三十七年【光海君元年】己酉【先生五十一歲】… 崔訥齋【暉】來訪。○曹頤齋【友仁】來訪。○訪李五峯【好閔。○李公嶺南人。素聞先生名，一見甚敬重之。先生作詩二章以贈之。】”

경세와 이준 등도 낙향했고, 손기양 역시 물러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³³ 이후 밀양 죽원에 거처하면서 관직에 임명되어도 나아가지 않았다.³⁴ 趙靖(1555~1636), 趙翊(1556~1613)과 함께 영남루 아래 배를 띄우기도 했고, 博淵亭과 七里灘을 유람하기도 했다.³⁵ 또한 점필서원에서 『周易』, 朱子書, 『退陶先生集』 등을 강학했다.³⁶ 손기양은 정구를 찾아가 만나보고 禮書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은 『近思錄』 간행과 관련한 일이나 文廟儀節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다.³⁷ 그러다 1617년(광해군 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³⁸

임진왜란 때 손기양은 호거산으로 피난 갔다가 산 아래 석동촌에서 의병을 창의했다. 또한 右防禦使 곽재우가 火旺城에서 진을 치고 20여명의 의병장들과 함께 회맹할 때도 참여했다.³⁹ 이후 주로 경상좌도 지역에서 지방관을 역임하며 향전을 계속했다. 이

32 『오한집』 연보. “三十八年庚戌【先生五十二歲】…十一月拜昌原府使, 詣闕謝恩【先生雅意林壑, 又見時事日非, 無意進取, 至是黽勉就途】”

33 『오한집』 연보. “四十年壬子【先生五十四歲】二月棄官歸【自戊申以後, 朝政日紊, 先生雖勉赴任, 而非其志也, 至是決意將退休, 時鄭愚伏·李蒼石亦退歸田里】”

34 『오한집』 연보. “四十一年癸丑【先生五十五歲】春還居竹院. ○拜司憲府掌令不就; “四十二年丙辰【先生五十八歲】…陞拜通政大夫尙州牧使, 不赴.”

35 『오한집』 연보. “四十年壬子【先生五十四歲】…四月與趙黔澗【靖】·可畦【翊】, 泛舟于嶺南樓下. …遊金兵使【太虛】博淵亭. 四十一年癸丑【先生五十五歲】…遊七里灘.”

36 『오한집』 연보. “四十二年甲寅【先生五十六歲】…十二月講『易』于佔畢書院. …四十三年乙卯【先生五十七歲】…講『朱子書』及『退陶先生集』于佔畢書院.”

37 『오한집』 연보. “四十二年丙辰【先生五十八歲】春往拜寒岡先生. 時寒岡先生有疾, 先生馳往候之. 因講論禮書, 寒岡先生屬先生考校禮書, 又託以謄寫. 先生即寫進一冊, 寒岡先生歎其考校之精. …七月遣人陪寒岡先生往榮川【時寒岡先生患風痺, 往浴於榮川椒井. 先生欲躬自陪行, 適患疾, 使學徒替行】…書稟文廟儀節于寒岡先生【壬辰之亂, 州學燬于兵火, 其後僅得重建. 至是聖廟屋材復壞敗, 鄉議方謀改構, 而移春還安之際, 節次儀度, 多不中式, 先生以露行春享爲未安, 貽書庠中, 而諸論猶紛紜不已. 先生即以書稟于寒岡先生, 既又貽書于鬻序諸生, 參酌禮義, 條定儀制, 奉行品節, 自此始正. 書逸. 惟稟目及鄭先生答書在集中】”

38 『오한집』 연보. “四十五年丁巳【先生五十九歲】正月, 初感疾革. …十一日, 終於正寢.”

39 李宜溫, 『龍蛇日錄』, “丁酉七月九日. 倭寇猖獗, 右防禦使郭公再祐, 結陣于火旺城, 列邑義

과정에서 손기양은 주로 퇴계학파의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1590년에 정구를 만나 본 이후로 때때로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였는데, 『예서』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은 『근사록』 간행과 관련한 일이나 문묘의절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조호익·이준·정경세·신지제, 孫處訥(1553~1634) 등과 교류하며 강학하였다.⁴⁰

창원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손기양은 밀양으로 돌아와 향촌사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신이 어려서 공부했던 점필서원을 중수하고 변무문을 지었으며, 예림서원에 신계성을 향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밀양향교를 재건하고 제향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구에게 문의하여 그 근거를 확보하였다.⁴¹ 또한 손기양은 밀양사림을 대표해 李彦迪(1491~1553)의 문묘중사를 촉구하였으며,⁴² 전란 이후 향촌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가례와 향례에 관심을 갖고 예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⁴³

한편, 밀양은 당시 복인의 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상우도 지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손기양의 활약으로 복인의 활동을 저지하고 남인 세를 확보하였다. 조호익의 조카 曷以復은 “밀양부의 서쪽에는 내가 있고, 동쪽에는 손공이 있으니,

兵將 … 孫起陽 … 二十餘人, 一齊領兵而會盟. 余與季兄往焉.”

40 『오한집』 이외에 손기양과 조호익·이준·신지제·손치눌 등의 관계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기양, 『芝山集』 부록 권2 「道峯書院奉安文【癸丑十二月】」; 趙靖, 『黔澗集』 권1 「雲門. 書贈孫景徵【起陽】嘲後至.」; 李厚慶, 『畏齋集』 권1 「答孫景徵【起陽】書【丙辰八月日】」; 李埈, 『蒼石續集』 권1 「答簡孫景徵【起陽】」; 呂大老, 『鑑湖集』 권1 「留別孫景徵次韻【號蟄漢】」; 孫處訥, 『慕堂集』 권1 「謝孫昌原景徵【起陽號蟄漢】冒雨來訪.」; 손치눌, 『모당집』 권3 「輓孫蟄漢景徵」; 金允安, 『東籬集』 권2 「次孫景徵韻【二首】」; 申之梯, 『梧峯集』 권2 「次孫景徵月影臺用鄭郊隱韻」; 신지제, 『오봉집』 권7 「祭孫景徵文」; 趙亨道, 『東溪集』 권1 「次蟄漢孫景徵【起陽】韻」; 李彦英, 『浣亭集』 권1 「次孫景徵【起陽號蟄漢○辛亥】」; 이언영 『완정집』 권2 「與孫景徵【起陽】」; 李潤雨, 『石潭集』 권1 「彥陽客舍. 留呈孫蟄漢景徵【起陽】」; 이운우, 『석담집』 권2 「與孫景徵」. 이들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41 孫起陽, 『오한집』 권3 「上寒岡先生.【丙辰. 本簡及寒岡先生所答稟目儀節, 並遺佚不收.】」; 장동표(2009), 앞의 논문, 19-21쪽.

42 손기양, 『오한집』 권3 「伸辨晦齋先生請從祀疏【代士林】」.

43 장동표(2009), 앞의 논문, 23쪽.

밀양 한 지방만큼은 더럽혀질 근심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였다.⁴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기양이 정구와 조호익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았고, 정경세·이준·이전·신지제·손치눌 등과 교유하는 등 퇴계학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밀양에서 복인 활동 저지와 남인세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다.

손기양과 퇴계학과의 관계는 그의 백부 孫英濟(1521~1585) 때부터 시작되었다. 손영제는 1569년 정월 예안 현감으로 부임해 그해 3월에 퇴계문하에 출입하면서 金富弼(1516~1577), 金富倫(1531~1598), 琴應夾(1526~1596), 琴應堦(1540~1616), 琴蘭秀(1530~1604), 趙穆(1524~1606), 李叔樛(1519~1592), 李德弘(1541~1596), 權文海(1534~1591)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리고 손영제는 퇴계 문인들과 함께 향교를 보수하고 釋菜禮 기물을 마련하였으며, 학규 약조를 정비하고 40인의 校奴를 두어 향교를 수호하게 하였다.⁴⁵ 이는 손기양 이전에 이미 손영제 때 퇴계학과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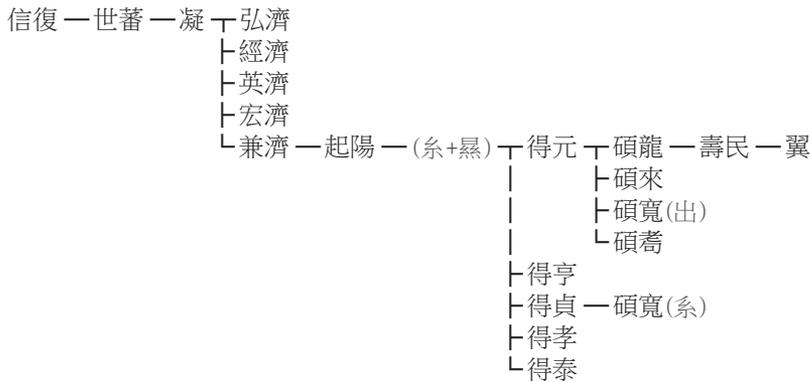
3. 『오한집』 간행 과정

손기양은 1617년 1월 초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그의 遺藁로 『排悶錄』 2권과 『輟釣錄』 4권이 있었으나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가 『철조록』이 산일되어 1권만 남게 되었다. 이를 손기양의 증손 손석관이 수습하여 초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손기양의 5대손 손사익이 이 초본을 가지고 갑술년(1754)에 이익을 찾아가 행장을 얻었다.⁴⁶ 손사익은 『鰲漢集』 간행을 준비하며 이익에게 손기양의 행장을 부탁했던 것이다.

44 이익, 『성호전집』 권66 「昌原府使鰲漢孫公行狀」. “蓋南北二字, 爲世標榜. 鄭仁弘主北張甚, 士趨日變. 曹醒齋以復曰: ‘府之西有僕, 其東孫公, 惟密一境, 不患或汙.’ 曹卽芝山先生之姪也.”

45 손영제와 퇴계 학맥의 관계는 鄭景柱, 2002, 「밀양의 퇴계 학맥」, 『嶺南學』 31, 47-50쪽에 자세히 다.

46 孫思翼, 「鰲漢先生文集後識」. “先祖遺藁, 初有『排悶錄』二卷·『輟釣錄』四卷, 而高王考僕正公生未朞而孤, 家事無人照管, 重以新宮三日之哭, 由來書籍, 蕩爲煨燼. 『排悶錄』則幸以獲完, 『輟釣錄』但有一卷, 而卷面題以第四, 則知其三人于火矣. 痛惋可勝. 至叔祖參判公, 始與一二子姓, 廬廡掇拾於燼餘, 各令謄寫于小冊, 而未及哀稔成帙. 及年甲戌, 余不肖以



〈밀양손씨 손기양-손사의 가계도 약도〉⁴⁷

(1781년 10월) 17일. 丙戌. 밀양의 진사 손사익이 그의 아들 有魯와 조카 秉魯를 보내 학문을 청하고 이어서 그의 선조 鰲漢公의 문집 서문을 부탁하였다. 선생은 氣候가 편안하지 못해 뜻대로 講討할 수 없었다.⁴⁸

하루는 공의 5세손 思翼이 그의 아들 有魯에게 선대의 원고 1질을 소매에 넣고서 3~4백리를 멀다하지 않고 나의 형님 大山公에게 부탁하게 하여 “讎校하고 서문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산공의) 병이 점점 심해져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유료가 다시 그의 아버지의 말로 光靖에게 말하길, “이

僕正公所草遺事, 乞得行狀文字於星湖李先生, 先生既加欽賞, 又多以記事題咏之賜.”[이후 「(오한선생)문집후지」 번역은 『국역·원문 오한선생문집』 395-396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손사익의 자는 伯卿, 호는 竹圃이다. 숙조인 孫碩寬에게 훈도받고, 1740년 진사시 입격 후 이익의 문하에서 집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사실은 알 수 없다. 崔興遠(1705~1786)의 문하에 나아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으나 승모하고 스승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장동표 (2019), 앞의 논문, 157쪽.]

47 『密城孫氏竹院派世譜』, 大譜社, 2001, 49쪽, 60-81쪽.

48 柳範休, 『湖溪答問』, “十七日. 丙戌. 密城孫上舍思翼送其子有魯·姪秉魯請學, 仍托其先祖鰲漢公集序. 先生以氣候不平, 不能極意講討, 將『大學』, 使之質疑.”

일을 다행히도 대산공께 부탁할 수 있었는데, 끝마치기 전에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손이 이미 그 일의 진행을 함께 들었는데 어찌 또한 이어서 그 일을 마쳐 저희 집안의 바람을 끝마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대산공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정이 스스로 돌아보건데 마땅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어찌 감히 이러한 부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私情을 헤아려보니 그 사이에 차마 붓을 들지 못할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양했던 것인데, 와서 권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기에 마침내 원고 속에 대략 교감을 가하여 마음에 의혹되는 것을 부쳐 돌려보냈다. … 壬寅年(1782) 梅雨節에 韓山 李光靖이 序하다.⁴⁹

손사익은 다시 신축년(1781) 겨울에 손유로와 손병로를 이상정에게 보내 문집의 교정을 부탁하였으나 이상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광정이 문집의 산정을 마무리하고 서문을 지었다.⁵⁰ 손기양은 경상좌도 남인들과 주로 교류하였으므로 교유 인물의 관계 및 학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으며 당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상정과 이광정에게 『오한집』의 교감과 서문을 부탁하여 격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당대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 관료인 체제공과 정약용도 『오한집』의 서문과 묘갈명, 묘지명을 작성하였다.⁵¹ 1792년(정조 16)에 『오한집』 간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

49 李光靖, 『磬漢先生文集序』, “一日公之五世孫思翼使其子有魯, 袖先薰一裘, 不遠三四百里, 見託於家兄大山公曰: ‘願讎校而弁卷也.’ 尋疾病浸淹, 無祿卽世. 有魯又以其大人公之言, 語光靖, ‘此事幸託於大山公, 未及卒業而人事至此. 子既與聞其終始, 盍亦踵之成之, 以卒私門之幸? 則抑亦成大山公之志也?’ 光靖自省非其人也, 何敢當是寄哉? 况揆以私情, 有不忍把筆於其間者. 辭之者至而責之益勤, 遂就橐中略加墨抹, 而付以所感於心者以歸之. … 壬寅梅雨節, 韓山李光靖序.”

50 손사익, 『(오한선생)문집후지』, “思翼奉以南歸, 仍以爲遺文登梓之圖, 而蹉過歲月, 迄未果焉. 頃在辛丑冬, 兒姪有魯秉魯輩, 以先祖所手草日記及書牘之未盡搜錄者, 事蹟之載於邑誌者, 更加蒐輯, 釐爲四卷, 仍以校勘之勞, 得請於大山李先生, 未及斷手, 而先生遽易簣矣. 私門痛恨. 豈但爲斯道之不幸哉? 惟幸小山翁克體伯府遺志, 刪定既畢, 序文重惠, 節約四帙, 僅成若干卷. 繼又得弁卷之文及墓道之銘於樊巖蔡相國, 今而後始可入梓矣.”

51 체제공은 서문과 묘갈명을 정약용은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이는 『樊巖集』 권32 『磬漢集序』, 『번암집』 권52 『磬漢孫公墓碣銘』, 『다산시문집』 제16권 『磬漢先生昌原都護府使孫公

고 손사익은 「文集後識」까지 완성하였다.⁵²

하지만 손사익이 판목을 사고 재물을 갖추어 『오한집』의 간행을 시작하려 할 때 역병이 크게 성하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또 그해 가을에 이르러 기근이 크게 들어 돈과 곡식이 남은 것이 없었고, 판목 역시 좀먹고 썩어서 쓸 수가 없어서 간행하는 일을 착수할 수 없었다. 게다가 1794년 손사익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 후로도 집안에 喪事가 계속되어 결국 『오한집』을 간행하지 못했다. 『오한집』 간행은 1819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었다.⁵³

손사익의 손자이자 손기양의 7대손인 孫鐘夏(1767~1831)는 族叔 孫拭魯, 宗弟 孫鐘玉(1774~1853) 등과 함께 칠탄정의 재물과 곡식을 보태고 다시 약간의 돈을 더 얻어 일을 마칠 수 있었다.⁵⁴ 이광정이 교감해 둔 유고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이때 李祥發(1745~?)의 교정을 받아 1825년에 『오한집』(원집 4권, 부록 1권)을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었다.⁵⁵

1754년부터 1792년까지 『오한집』 간행을 위한 1차시도 때 손사익은 이익·이상정·이광정·채제공 등에게 행장·교감·서문·묘지명 등을 부탁하였으며, 1819년부터

【起陽】墓誌銘에 각각 실려있다.

- 52 손사익, 「(오한선생)문집후지」. “今於劊劊之始, 欲識其顛末, 而神思昏曠, 積感填胸, 把筆旋止者數矣. 僅於涔涔中, 略識其大槩如是. 歲王子仲春下澣, 五世孫思翼謹書.”
- 53 孫鐘夏, 「罄漢先生文集後識」. “始王考之爲此文也, 購板庀財, 將以始事矣. 適會是年春疫癘大熾, 遂停其役, 至秋歲大饑, 金穀之在民間者, 散失無餘, 而板亦蠹敗不可用, 於是而刊事沒巴鼻矣. 至甲寅王考下世, 自後門內多事, 喪威荐疊, 不遑及此者數十年. 頃在己卯春, 始略加措置.” [이후 「오한선생문집후지」 번역은 『국역·원문 오한선생문집』 397-398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54 “鐘夏”는 『密城孫氏竹院派世譜』에 “鍾應”으로 되어 있다. 중하는 중응의 초명이다. 손중하는 손사익의 둘째 아들 손이로의 아들이며, 손중옥은 손사익의 첫째 아들 손유로의 첫째 아들이자 손사익의 맏손자이다.
- 55 손중하, 「오한선생문집후지」. “至今年乙酉, 凡得若干緡, 乃相與謀曰: ‘刊事及今不力, 恐復有如王子之爲者, 盍勉諸, 議遂定. 而顧財詎舉贏, 乃益以七灘亭財穀, 復得若干緡, 始克舉事. 主是議者, 族叔拭魯氏·宗弟鐘玉也. 至於遺文, 則曾經湖上校勘, 而猶有未盡刪正者. 余不肖蓋嘗就質於聞韶李上舍丈祥發, 釐以爲元集四卷附錄一卷, 不閱月而工告訖, 匪敢曰成先志也. 聊以識王考跋文年月之參差云爾. 是歲三月日, 孫男鐘夏謹識.”

1825년까지 『오한집』 간행을 위한 2차시도 때 손종하는 이상발·柳尋春(1762~1834) 등에게 교정·발문 등을 부탁했다.

【표】『오한집』 간행을 위한 시도와 작성 문서

분류	성명	요청 내용 및 작성 문서
1차시도(1754~1792)	이익	行狀, 附七灘亭題詠
	이상정	교감, 서문
	이광정	교감, 鰲漢先生文集序
	채제공	鰲漢先生文集序, 墓碣銘
2차시도(1819~1825)	이상발	교정
	류심춘	발문
기타	정약용	鰲漢先生昌原都護府使孫公【起陽】墓誌銘

손사익은 근기 남인의 대표적 학자 이익과 관료인 채제공에게 손기양의 행장과 묘갈 명 그리고 문집의 서문을 부탁했고 영남 남인의 대표적 학자 이상정과 이광정에게 문집 간행을 위한 교감과 서문 작성을 요청했다. 또한 손종하는 영남 남인인 이상발에게 교정을, 같은 영남 남인이자 류성룡의 후손인 류심춘에게 발문을 요청하였다.

4. 유허 정비와 칠탄서원 건립

손사익은 이익에게 행장을 얻었던 1754년 무렵 「칠탄정십육경도」를 보여 주었는데, 이 칠탄정은 손사익의 5대조 손기양의 유허에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茶山의 남쪽에 眞巖이 있는데 1612년(광해군 4)에 창원부사를 사직하고 낙향한 손기양이 낚시하던 곳이다. 이곳에 몇 칸의 草亭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무너져 버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증손 손석관이 손석범과 함께 1712년 겨울에 계를 만들고 1725년에 그 옛터에 세 칸의 집을 짓고 편액을 ‘眞巖書堂’이라 하였다.⁵⁶ 그리고 손석관은 이곳에 중을 두

56 孫碩寬, 『七灘誌』 권1 「眞巖書堂記」, “茶山之南, 有眞巖, 卽我曾王考鰲漢先生, 漁釣之所也. 舊有數間草亭, 而歲久頽圮, 不尙惟是之懼, 歲壬辰冬, 與從弟碩範, 設契, 至乙巳, 就其遺趾, 構數架, 因地名而顏其楣曰, 眞巖書堂.” [이후 『칠탄지』 번역은 孫八洲·鄭景柱 譯主 『國譯·原文七灘誌』(第一文化社, 1989)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⁵⁷

지금 上舍 孫伯敬(손사익)이 밀양에서부터 와서 보여준 ‘七灘亭十六景畫’는 그의 오대 조 蟄漢先生(손기양)의 遺墟로 자손들이 학문에 힘쓰며 없어지지 않도록 한 곳이다. 여러모로 기이한 경관이 정신을 상쾌하고 감동시킨다. 내 이미 늙어 맑은 자취를 직접 가서 高風을 살펴볼 수는 없으니, 나도 몰래 “칠리탄 머리에서 낚시대 드리우니, 푸른 강물 맑고 앞은데 물결은 차네. 당년의 갓옷 입은 嚴光이 우습구나. 끝내 인간 세상 諫議 벼슬함이여.”라는 선생의 시 한 구절을 엄숙하게 읊었다. 다 읊은 후에 붓을 들고 삼가 글을 쓴다.⁵⁸

1748년(영조 24)에 5세손 손사익은 옛 건물이 좁아 공부하는 학생과 관리하는 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앞과 뒤를 넓혀서 옹거 세울 계획을 하였다. 이에 재종숙 孫壽斗(1712~1775)와 함께 이 일을 담당하여 먼저 옛터에서 동쪽으로 8~9걸음쯤 나아가 평평하게 개간하였다. 옛날의 재목과 기와는 썩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낡은 짚을 사서 기둥과 들보를 하고 그 제도를 넓혀서 다섯 칸의 僧寮를 엮었다. 다시 이웃 마을에서 다섯 칸의 새 집을 사서 좌우의 회랑으로 붙였고, 난간을 벌여놓고 그것을 ‘眞巖溪亭’이라 이름하였다.⁵⁹ 좌우 회랑에 날개를 붙인 곳은 ‘七灘亭’이라 하였다.⁶⁰

1784년에 손사익은 근심하여 “무진년(1748)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7년이라는 오

57 孫秉魯, 『칠탄지』 권1 「七灘亭重修記(二)」, “於是, 斫藜莽, 芟樛翳, 結茆于棋巖洗瀑之間, 置衲子, 俾守護焉.”

58 이익, 『성호전집』 권6 「七灘亭十六景【并小序】」, “今孫上舍伯敬自密陽來, 示七灘亭十六景畫者, 卽其五世祖蟄漢先生遺基, 而子孫藏修不廢也. 種種奇觀, 魂爽魄動. 灑既老篤, 計不可往躡清塵俛仰高風, 則自不覺莊誦先生詩一絕曰: ‘七里灘頭一釣竿, 碧江清淺浪花寒. 當年却笑羊裘子, 終帶人間諫議官.’ 詠罷泚筆謹書.”

59 孫以魯, 『칠탄지』 권1 「七灘亭重修記(一)」, “戊辰, 先考竹圃公, 以舊材狹隘, 面背少寬, 敞爲移建之計. 乃與再從叔壽斗, 同掌其事, 就古址東, 約八九步許, 山脚之不盡陂陁者, 鑿而平之, 闢而廣之, 削高填深, 力役甚繁重. 舊材瓦朽不可用, 買廢佛寺, 用脩樑. 廣其制, 縛五架僧寮, 又買五間新屋于隣村, 翼以左右廊, 侈以欄檻, 名之以眞巖溪亭.”

60 손병로, 『칠탄지』 권1 「칠탄정중수기(二)」, “二十四年戊辰, 以舊材隘陋下窄, 不足以庇學徒而容緇流, 與諸昆季子姓, 鳩材集匠, 移建于灘上平行處, 遂廣其制, 中置僧寮, 翼以左右廊, 名曰七灘亭.”

랜 세월이 지나 이제 내 나이 또한 일흔이 넘었으니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경자년(1720)과 기미년(1730)부터 갑술년(1754)까지 멀고 가깝게 사는 문장가 시인들이 정자를 읊은 작품들이 상자에 차서 넘치는데 아직도 이 집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부끄러우며 한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손사경이 총괄하여 전에 심었던 은행나무 두 그루를 찍어서 空樑과 바깥 기둥에 쓸 것을 준비하고 기한을 정해 기와를 굽고 재목을 모아서 四架亭子를 세웠고 동서쪽의 머리에 각각 방 하나씩을 두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업을 익히는 공간으로 삼았다.⁶¹

정자가 만들어진 지 겨우 20년 만에 사방의 난간과 서까래가 썩어 무너지고, 물이 스며들어 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승료의 동쪽과 서쪽의 결체는 기울어지거나 쇠퇴해져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묘년(1807) 8월에 일을 시작하여 기둥·서까래·판목·난간 중에서 썩어서 검게 되고 휘어지고 꺾어진 것을 하나 하나 고쳐서 새롭게 하였다. 또 동쪽 회랑에 승료를 한 칸 붙여서 넓혔다. 무진년(1808) 봄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孫以魯(1747~1819)가 손규로·손식으로 등과 함께 한 일이다.⁶² 그리고 이익의 「십육경시」, 당대 문장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시와 상량문을 門楣 사이에 걸었다.⁶³

즉, 손사익이 이익을 찾아가 행장을 받고 「칠탄정십육경도」를 보여 주었던 1754년부터

61 손이로, 『칠탄지』 권1 「칠탄정중수기(一)」. “甲辰, 先考忽撫然不樂曰: ‘自戊辰至今日, 三十有七年之久, 而今吾年亦七旬, 餘日無幾. 且庚子己未, 以至甲戌, 遠近文章韻士之所題咏者, 殆盈箱溢篋, 而尙此屋未就者, 非可愧而可恨者乎.’ 遂會門中諸弟諸侄, 與之商度, 命從叔思綱, 揔攝其事, 斫前所植杏樹二株, 以備空樑與外柱之用, 刻期燒瓦鳩材, 立四架亭子. 東西頭各置一房, 爲老少分居之計.” 손병로, 「칠탄정중수기(二)」, 『칠탄지』 권1. “于後甲辰春, 我伯父竹圃公, 與從弟及子侄輩, 創四架亭子于僧寮之前, 東西各置一房, 爲學子肄業之所.”

62 손이로, 『칠탄지』 권1 「칠탄정중수기(一)」. “亭之成纔二十有餘年, 而工不善其事, 四隅衝椽, 幾至朽敗, 多有滲漏漫漶之弊, 僧寮及東西廂, 或傾或頽, 甚有傾壓之憂. 不肖等, 合辭言曰, 今而不修, 以至頽廢, 則將何以有辭於後來乎. 賣屋後兩岡松木, 幾至數百金, 因爲子母取贏焉. 主金穀之任者, 實族弟鐸魯. 丁卯八月望後, 始役棟樑樑椽, 板檻之腐黑擾折者, 一一修而新之, 東廊添以一間僧廚, 廣而拓之, 冬至月旬間, 木事始斷手, 明年戊辰春, 土功始畢. …于時, 家兄年已衰老, 不能幹其事, 予以庸愚, 任其責, 家季奎魯·族弟拭魯, 門中諸弟, 相爲經始, 規模布置之宜, 監董經紀之節, 俱是拭魯之謹勞.”

63 손병로, 『칠탄지』 권1 「칠탄정중수기(二)」. “歲丁卯春, 始改瓦易材, 仍舊爲新. 既又取星湖李公十六景詩, 及當代文章鉅公, 詩及上梁文, 揭于楣間.”

터 손이로가 손규로·손식으로 등과 함께 칠탄정을 보수한 1808년까지 진암계정·칠탄정 등을 대상으로 지은 시와 상량문 등을 걸었던 것이다.

시기적으로 이익의 「칠탄정십육경병서」 서판, 임수적의 「기제진암계정」, 신광수의 「경차칠탄정운」, 임정의 「기제진암계정」, 이가환의 「근차칠탄정운」 등 시판, 채제공의 ‘칠탄정’·‘竹院齋舍’·‘진암수석’ 등 편액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한편, 1797년 여름부터 손기양의 향사 논의가 있어 밀양향교에서 통문을 발송했다.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李祚潤·李彙·趙述立·朴鼎洛·趙學洙·金宗玉·李(禾+躬) 등이 앞장서서 경상도 관찰사 및 繡衣使에게 글을 올려 향사의 타당성과 함께 贈諡·贈職·旌褒 등을 청원하였다. 1797년 10월 15일 밀양향교에서는 손기양의 향사를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통문을 발송하여 이 내용을 알리며 아울러 11월 15일에 칠탄정에서 모여 상의한다고 하였다.⁶⁵

1812년에 향내 사람들이 수의사의 앞으로 나아가 손기양의 포상 시행을 하소연하여 조정에 이 일이 알려졌고 吏曹에서 ‘난을 당하여 공을 세우고 혼조에 벼슬하지 않았으니 포상하는 은전을 시행함이 적합하다.’라는 회啓가 내려졌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⁶⁶ 이에 1822년에 안효선 등이 밀양사람을 대표해 포상 시행을 청원하였고, 손식으로 등 후손들은 손기양의 遺稿를 포상 시행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⁶⁷

1844년(헌종 10)에 향내 사람들의 주창으로 경내에 淸節祠를 세워 享祀하고 편액을 ‘七灘書院’이라 했다. 이때 李彙寧(1788~1861)은 「七灘書院淸節祠上樑文」을

64 현재 칠탄서원에는 이외에도 정학연의 「근제운강루」, 許傳(1797~1886)의 「敬次雲江樓韻」 등 시판과 권응기의 ‘읍청당’ 등 편액도 걸려있다.

65 安景器 등, 『칠탄지』 권2 「密陽鄉校通文」, “吾鄉後生, 數百年慕賢尚德之誠, 在於聚遠整漢兩先生, 而公議不泯, 幸於去年, 已享聚遠堂, 夏間又自校中, 以整漢先生祭祀之議, 有所發文, 而久未究竟矣. 今則道論已成, 鄉議僉同, 齊會于校中, 茲以發文更告, 伏願僉君子, 以今十一月十五日, 會于七灘亭, 以爲合席相議之地, 千萬幸甚, 丁巳十月十五日.”

66 安孝善 등, 『칠탄지』 권1 「密陽士林呈繡衣狀(三)」, “至于王申多士又齊籲于駕前, 以爲上徹之地矣. 吏曹回啓中, 有當亂立功, 不仕昏朝, 合行褒錄之典, 而遂寢而不行. 此實南土人士之所共鬱抑而歎息者也.”

67 安孝善 등, 『칠탄지』 권1 「密陽士林呈繡衣狀(三)」; 孫拭魯 등, 『칠탄지』 권1 「本孫呈繡衣狀(二)」, “伏乞念先賢闡揚之義, 矜辱孫哀痛之私, 俾納遺稿, 得一經覽, 則可以知先祖淵源, 經術之正, 勇退風節之高, 當亂勞悴之蹟, 惟閣下哀憐而垂恤焉. … 壬午七月 日.”

지었고, 柳致明(1777~1861)은 「七灘書院奉安文」과 「常享祝文」을 지었다.⁶⁸ 하지만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에 따라 칠탄서원은 훼손되었다.

1914년 4월에 유허비를 세우며 柳必永(1841~1924)은 「七灘書院遺墟碑銘并序」를, 盧相稷(1855~1931)은 「七灘書院遺墟碑告由文」을 작성하였다.⁶⁹ 이후 칠탄서원 중건을 위한 계모임이 조직되었고, 그 내용은 許採(1859~1935)가 「七灘契案書」로 작성하였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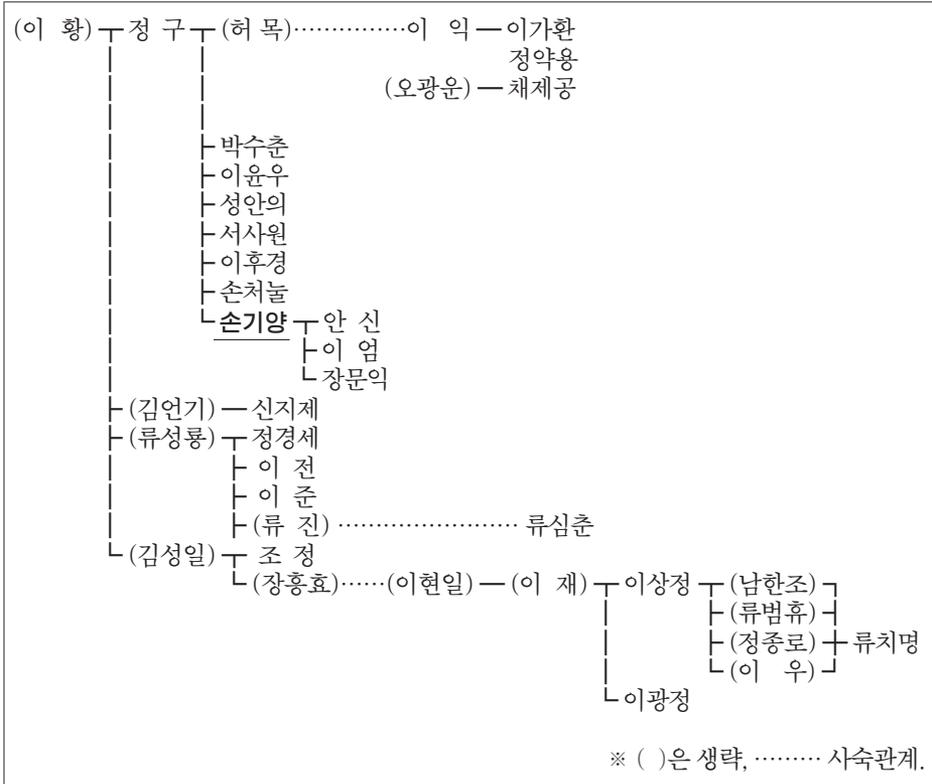
1559년 밀양 용성리 집에서 태어난 손기양은 1585년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158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589년 성주의 주학교수로 부임하여 당시 성주에 살고 있던 정구를 찾아가 만나보고 이후 학문을 전해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거산 아래 석동촌에서 의병을 창의하고 밀양 부사 박진과 함께 삼랑진의 작원관을 막았다. 이후 성현도 찰방·신녕 현감 등에 제수되어 왜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손기양은 정구와 도의의 교분이 깊어 편지를 자주 왕래하였으며, 정경세·조호익·李潤雨(1569~1634)·이전·이준·성한의·신지제·李彦英(1568~1639)·여대로·조정·徐思遠(1550~1615)·李厚慶(1558~1630)·조우인·손처눌·최현 등을 중유하였다.⁷⁰ 손기양이 중요한 인물은 대부분 류성룡·김성일·정구 등의 문인이었는데, 그는 특히 정구·조호익·정경세에게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퇴계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68 柳致明, 『칠탄지』 권1 「七灘書院奉安文」, 「常享祝文」; 李彙寧, 『칠탄지』 권1 「七灘書院清節祠上樑文」.

69 柳必永, 『칠탄지』 권2 「七灘書院遺墟碑銘」; 盧相稷, 『칠탄지』 권2 「七灘書院遺墟碑告由文」.

70 이익, 『성호전집』 권66 「장원부사오한손공행상」. “一時遊從如鄭愚伏經世·曹芝山好益·李石潭潤雨·李月潤垵·若其弟蒼石垵·成芙蓉安義·申梧峯之悌·李浣亭彦英·呂鑑湖大老·趙黔礪靖·徐樂齋思遠·李畏齋厚慶·孫慕堂某, 莫非嶺外碩德名勝. 至寒岡鄭先生, 道義契深, 書牘頻繁, 垂爲儒門考信.”



손기양 교유인, 『오한집』 간행 및 칠탄정 관련 인물의 관계망

등과한지 3년이 지나 예물을 들고 한강 정선생 문하에서 학문을 청하였다. 또 지산 조호의 공에게 의문난 곳을 물었다. 「風神說」을 지어 淫祀를 혁파하였고, 퇴계 이선생의 글을 사숙하여 그 길흉례의 조목을 뽑아 기록하여 家範으로 남겼다. 한양집에서는 우복 정경세 선생과 함께 날마다 『朱書節要』를 강론하여 그 志趣를 밝혔다.⁷¹

71 丁若鏞, 『與猶堂全書_文集』 권16 「聳漢先生昌原都護府使孫公【起陽】墓誌銘」. “登科之越三年, 執贄請學于寒岡鄭先生之門. 既又辨惑于芝山曹公【好益】之席, 作風神之說, 以革淫祀. 私淑乎退溪李先生之書, 節錄其吉凶禮條, 以遺家範. 漢陽邱舍, 與愚伏鄭先生【經世】日講『朱書節要』, 以發其歸趣.”

한편, 1609년 창원부사에 제수되어 사은숙배하였으나 조정에서 당쟁이 심화되자 고향 밀양으로 낙향하고 이후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밀양으로 돌아온 손기양은 어려서 공부했던 점필서원을 중수하고 이언적을 위한 변무문을 지었으며, 예림서원에 신계성을 향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밀양향교를 재건하고 제향을 실시하였으며, 밀양사람을 대표해 이언적의 문묘중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향촌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가례와 향례에 관심을 가지고 예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손기양 사후 그의 후손들은 그의 유고를 정리하고 그가 살았던 유허를 정비하였다. 증손 손석관은 손기양의 유고를 수습하여 초본을 만들고 유허지에 3칸의 '진암서당'을 지었다. 5대손 손사익은 이익에게 손기양의 행장을, 이상정과 이광평에게 문집의 교정과 서문을, 체제공에게 문집의 서문과 손기양의 묘갈명을 부탁하여 『오한집』 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손사익은 1748년에 옛 건물을 옮겨 '진암계정'과 '칠탄정'으로 증축하여 1784년에 완성하였다.

1808년 손이로는 손규로·손식로 등과 함께 퇴락해가는 건물을 수리하였고, 이때 손사익이 받아 두었던 문장가 시인들이 정자를 읊은 작품들을 문미 사이에 걸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익의 「칠탄정십육경병서」 서판, 임수적의 「기제진암계정」, 신광수의 「경차칠탄정운」, 임정의 「기제진암계정」, 이가환의 「근차칠탄정운」 등 시판, 체제공의 「칠탄정」·「죽원재사」·「진암수석」 등 편액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7년 여름부터 손기양의 밀양향교 향사 논의가 있었으며, 밀양을 비롯해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증시·증직·정포 등을 청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식로 등 후손들은 손기양의 유고를 포상 시행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한편, 『오한집』의 간행은 손기양의 7대손이자 손사익의 손자인 손종하가 손식로·손종옥 등과 함께 이상발의 교정을 받아 1825년에 이루어졌다.

1844년에는 향내 사람들의 주창으로 경내에 청절사를 세워 향사하고 편액을 '칠탄서원'이라 했으나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하지만 1914년 유허비가 세워지고, 계모임이 조직되어 1936년에 재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손기양이 퇴계학파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손석관·손사익·손종하 등 그의 후손들은 퇴계학파의 후예인 영남 남인과 교류하며 문집 간행과 추송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손기양의 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익·체제공·이가환 등 근기 남인을 적극 활용하였다.⁷²

칠탄정 등에 서판·시판·편액을 쓴 사람 중 이익·채제공·이가환 등은 당대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관료였다. 이들은 학적 계통을 퇴계 이황과 연결시키고 정치적으로 영남 남인과 제휴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밀양손씨가 『오한집』 간행을 위한 시도와 그 유허지에 진암계정과 칠탄정을 건립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근기 남인의 도움을 받아 손기양의 학적 위상을 높여 나갔던 것이다.

이후 손기양의 밀양 향교 향사 및 조정으로부터의 포상을 위해서 손식으로 등 후손들은 밀양을 비롯한 경상도 사림들의 도움을 받아 경상도 관찰사와 수의사 등에게 청원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밀양 향교에 손기양을 향사하고, 나아가 1844년 청절사를 세우고 ‘칠탄서원’으로 편액하게 되었다. 즉, 손기양의 후손들은 먼저 근기 남인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영남 남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여 손기양을 밀양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손사익이 손기양의 행장을 받기 위해 찾아갔던 이익은 ‘이황-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 계보의 핵심 인물이었고, 『오한집』 간행을 위해 교정과 서문을 부탁했던 이상정·이광정 형제는 ‘이황-김성일-장홍효-이현일-이재’로 이어지는 영남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칠탄서원을 대상으로 글을 지은 인물들 역시 당대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칠

72 손사익은 이익·채제공·최홍원·이상정·이광정·목만중 등에게 편지를 보내 『오한집』 간행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다음은 손사익이 목만중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선조 오한공의 행장은 이미 성호 선생께 부탁하여 얻었고, 집안에 보관하던 글도 판각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문집 서문을 지난해 대산 이공에게 요청하였는데, 교정이 겨우 끝나자 우리들에게 또 복이 없게 되었습니다. 온 영남을 빙 둘러 보더라도 다시는 글을 부탁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조정에 있는 거공들 중에 기백과 우의가 서로 감응될만한 분으로는 채상서(蔡尙書: 채제공)나 이해환(李惠寰: 이용휴)이나 정학사(丁學士: 정약용)나 홍군택(洪君擇: 홍수보)과 유선(幼選: 목만중) 형 같은 분이 있습니다.”[손사익, 『竹圃集』 권2 「與睦餘窩幼選【萬中】】“吾先祖罄漢公行狀, 曾已乞得於星湖先生, 家藏文稿, 仍謀入梓. 弁卷文字, 頃年, 得請於大山李公, 考校甫畢, 吾黨又無諒矣. 環顧嶺中, 爰無乞文之地. 竊念朝著鉅公, 氣誼之可以相感者, 若蔡尙書·李惠寰·丁學士·洪令君擇·吾幼選兄, 若而人在.”번역은 孫八洲·鄭景柱 譯主 『國譯·原文 竹圃集』(빛남사, 1997) 105쪽을 참고하였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손사익은 문집 간행과 추송을 위해 영남 남인과 근기 남인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탄서원봉안문」과 「상향축문」을 지은 류치명은 이상정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였으며, 「칠탄서원상량문」을 지은 이휘녕은 이황의 10세 종손으로 칠탄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근제운강루」를 지은 허전은 ‘이익-안정복-황덕길’을 잇는 당대 근기 남인의 대표적 학자 관료로, 1864년(고종 1) 3월부터 1867년(고종 4) 7월까지 金海府使로 재임하면서 公餘堂에서 많은 강우 지역 학자들을 가르쳐 학풍을 크게 진작시킨 인물이다.⁷³

『오한집』 간행과 칠탄서원 건립 등의 과정을 통해 손기양은 퇴계학과 그중에서도 한강 정구 문인이자 밀양을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논문투고 : 2021.5.28. 논문심사완료 : 2021.6.14. 게재확정 : 2021.6.19.

73 「七灘書院遺墟碑告由文」을 지은 盧相稷(1855~1931) 역시 허전의 문인이다.

[참고문헌]

■ 사료

『國朝文科榜目』, 『茶山詩文集』, 『樊巖集』, 『宣祖實錄』, 『星湖全集』, 『磬漢集』, 『龍蛇日錄』, 『乙酉八月司馬榜目』, 『竹圃集』, 『七灘誌』, 『湖溪答問』

■ 논저

- 孫八洲·鄭景柱 譯主, 1989, 『國譯·原文 七灘誌』, 第一文化社.
孫八洲 編譯, 1992, 『國譯·原文 磬漢先生文集』, 빛남.
孫八洲·鄭景柱 譯主, 1997, 『國譯·原文 竹圃集』, 빛남사.
孫八洲, 1991, 「《七灘誌》所載 漢詩 研究」, 『釜山漢文學 研究』 6.
이경화, 2016, 『姜世晷 研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장동표, 2009, 「17세기 초반 재지사족 孫起陽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
장동표, 2019, 「조선후기 향촌 재지사족의 동향과 향촌사회 활동-18세기 밀양지역 향촌지식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5.
鄭景柱, 2002, 「밀양의 퇴계 학맥」, 『嶺南學』 31.

[Abstra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of Ohanjip(鰲漢集) and the establishment of Chiltan Seowon(七灘書院)

Yi, Nam-ok

Son Gi-yang(孫起陽) passed the examination in 1588, and was appointed state school professor in Seongju the following year. At this time, he visited Jeong Gu, who was living in Seongju, and since then, he frequently exchanged letters and discussed scholarships.

Whe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Son Gi-yang organized an army and fought, and became a regional officer and worked hard to defend the Japanese army. In this process, Son Gi-yang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Jeong Gyeong-se, Jo Ho-ik, Yi Yun-u, Yi Jeon, Yi Jun, Seong An-eui, Sin Ji-je, Yeo Dae-ro, Jo Jeong, Seo Sa-won, Yi Hu-geong, and Son Che-nul, the Toegye schools of Gyeongsang Jwado.

As the political party of the court intensified, Son Gi-yang left his office in 1609 at the end of Changwon governor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Milyang(密陽). Afterwards, he rebuilt the Jeompil Seowon and Milyang Hyanggyo, and tried to stabilize the local order on behalf of Milyang scholars.

After Son Gi-yang's death, his descendants organized his writings and rearranged the ruins. In this process, they tried to establish the status of Son Gi-yang within the Toegye School and to form academic authority.

Son Sa-ik(孫思翼) asked Yi Ik, who was a key person in the genealogy of Nam-in in metropolitan area, which lead to 'Yi Hwang→Jeong gu→Heo Mok', to write Son Gi-yang's biography. Also he asked brothers Yi Sang-jeong and Yi Gwang-jeong, who are the key persons of Nam-in in Yeongnam, who lead 'Yi

Hwang→Kim Seong-il→Jang Heung-hyo→Yi Hyeon-il→Yi Jae', to correct Son Gi-yang's writing and write the preface.

Afterwards, his descendants built Chiltan Seowon and performed a ritual of Son Gi-yang. At this time, Ryu Chi-myeong, the scholar representing Nam-in in Yeongnam, wrote "Chiltan Seowon Bonganmun" and "Sanghyangchukmun", while Yi Hwi-nyeong, the descendant of Yi Hwang, wrote "Chiltan Seowon Cheongjeolsa Sangryangmun". These were the figures who could give the legitimacy of the construction of Chiltan Seowon within the Toegye School.

Through this process Son Gi-yang became a member of the Toegye school and a scholar representing Milyang by his descendants.

keywords : Son Gi-yang(孫起陽), Son Sa-ik(孫思翼), Milyang(密陽), Ohanjip(鰲漢集), Chiltan Seowon(七灘書院)

